

近代정치사의巨木 古下 宋鎮禹선생

3·1운동때는 48인의 한사람으로 獄苦를 치렀던 독립운동가였고 한국민주당을 결성, 수석총무를 지낸 정치가였는가 하면 東亞日報사장과 주필등을 역임한 언론인이기도했던 古下

니다. 그러나 펍 엄격하고 무서웠던 할아버지로떠오릅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손자인 저를 불러 漢文책을 펴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외어두라는 숙제를 주셨다가 귀가하신 뒤에는 반드시 확인하셨고 손자가 이미 잠이 들었더라도 깨워서까지 숙제를 테스트하시곤 했습니다. 잘 외면 칭찬해주셨지만, 더듬거리는 경우에는 어김없는 회초리 세례였습니다. 유난히 흰피부에 해맑은 웃음이 친근한 느낌이 드는 宋교수의 인상이다.

서울法大재학중 최연소로 高試司法·行政양과에 합격한 후



“遺品 제대로간직못해 面目없지요”

漢文숙제를 못했을땐 회초리들어

宋鎮禹선생. 또한 일본유학시절엔 金炳魯등과 유학생기관지 「學之光」을 펴내면서 나라잃은 설움을 토로하다 광복을 맞았으나 45년 그해 겨울 55세로 암살당한 古下는 가장 不運했던민족지도자의 한사람이었다.

자손만 하더라도 1890년생인 古下는 두살 위인 부인 柳次여사와의 사이에 외아들 英洙씨(72·東亞日報감사)만을두었고 손자마저 相賢씨(44)하나뿐이다. 서울法大교수(商法·民事訴訟法)인 손자 相賢씨를 만나 古下의 얘기를 들었다.

『너무 어릴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로 기억나는 일은 없읍

67년 渡美, 코넬大에서 法博학위를 받은 宋교수는 金相浹 前국무총리의 장녀인 金明信여사(37)와 결혼, 1남1녀를 둔 중견 法學者다. 宋교수는 1남1녀에게 『아무리 잘못이 크더라도 남에게 심한 면박을 주지말것이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알려주고 그것을 칭찬해 주라. 그리고 정직하라』는 가훈을 실천해갈것을 일러오고 있다고 말한다.

『할아버님의 遺品을 간직못해 면목이 없다』는말을 강조하는 宋교수는 자랑스런 후예로 보다는 떳떳한 후예로 살아갈것임을 다짐해 보인다. 【珪】